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 집중으로 종이책 대체할 것으로 기대

“e-Book 산업전망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긍정적인 인식 확산 중”

최태경 한국지식정보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지난 7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전자책의 수요가 기대만큼 빨리 늘지 않아 전자책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e-Book이 종이책을 위협하거나 언젠가 아예 대체할 것이란 관련 업체들의 신념과 달리 연간 140억달러 규모의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보도했다.

세계 굴지의 미디어그룹인 AOL타임워너, 랜덤하우스 등은 e-Book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한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았던 넷라이브리러사, 레시피로칼사, 마이티워즈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문을 닫았다.

2년 전에 스티븐 킹의 ‘총알을 타고(Riding Bullet)’ 전자책이 발매 이틀만에 40만 부가 판매돼 e-Book 산업에 대한 큰 기대로 국내외 업계가 들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e-Book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e-Book의 필연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IDC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까지 e-Book 콘텐츠 판매량이 연평균 165% 성장이 추정되며, 2005년에는 출판시장의 10%인 3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더앤더슨컨설팅은 2005년 전자책단말기가 2780만달러, e-Book 콘텐츠는 34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우에 정부, 기관, 기업 등에서 e-Book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e-Book 산업의 필연성에 대한 믿음

기업의 경우 바로북, 와이즈북토피아, 에스24 등 웹에서 판매되는 e-Book 콘텐츠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이원프로테크, 한국전자북, 대양이앤씨 등은 앞다투어 단말기 출시를 하고 있고, 영진닷컴은 기존 종이책에 e-Book 버전을 함께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e-Book 산업의 대표기관인 한국지식정보콘텐츠산업협회(KEBIA)와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의 활동도 활발하다. KEBIA는 지난 5월 e-Book 통합검색과 제작환경을 지원하는 ‘e-Book 종합정보시스템(www.ebook.or.kr)’을 오픈했다. EBK는 지난 4월 ‘2002 한국전자책산업전(Korea eBook Fair)’을 열어 두 기관 모두 e-Book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경우엔 더욱 적극적이다. 정보통신부는 ‘e-Book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e-Book 표준화포럼’과 ‘지식정보허브시스템’을 통해 e-Book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5억원 규모의 ‘우수 전자책 지원사업’ 등을 통해 e-Book 서비스업체의 제작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 도입을, 산업자원부는 기술표준원을 통해 e-Book에 대한 문서 표준을 KS로 제정 고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국내 환경을 비교하자면 e-Book 산업의 전망에 대해 양쪽 모두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e-Book 기술표준화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차이점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시장 초기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무모한 투자로 e-Book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최근 비판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힘겹게 끌고 오다가 최근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 물론 이런 차이가 e-Book 산업 활성화의 정점이라 여기는 2005년경에 미국보다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선부른 결론은 금물이다. 세계적인 미디어기업들이 e-Book 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자본 이동의 효율성에 따른 것일 뿐 여전히 미국내의 e-Book 산업에 대한 기술과 자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e-Book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Book 산업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에 대한 몇 가지 핵심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인식 부족

지난 3월 한국지식정보콘텐츠산업협회 연구위원인 김소형 교수(여주대학)가 한달간 직장인, 대학생, 대학교수 등 170명을 대상으로 e-Book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e-Book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에 대해 극히 낮다는 연구 결과(e-Book 허브사이트 운영에 대한 연구 보고서, 2002년 4월 발간)가 나왔다.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 대학교수, 기업체 직원의 e-Book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e-Book 시장 전망 역시 평균 15%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현황

국내 e-Book 콘텐츠 서비스 업체는 바로북, 와이즈북토피아, 예스24, 한국문화도서관, 노블21 등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만 종의 e-Book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 규모에 비해 주로 소설, 무협,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판매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콘텐츠 편중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콘텐츠의 대부분이 기존 출판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고 있어 e-Book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취약하다.

e-Book의 주력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층에 어필할 수 있는 교육 및 전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행, 레저, 생활 콘텐츠는 단말기 보급의 취약함과 맞물려 e-Book 콘텐츠의 차별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 현황

단말기는 에이원프로테크(APB-110), 삼성전자(넥시오), 대양이엔씨(엠피씨북), 한국전자북(Hiebook) 등의 단말기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보급은 기술과 자본 규모로 인해 e-Book 분야 중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Book 단말기가 구현 기능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기능 개선을 하며 발전하고 있는 PDA와 차별성을 가

지지 못하고 있다. 또 포켓PC와 PDA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여서 e-Book 전용 단말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특히 유무선 환경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e-Book의 특성상 데스크탑에서 휴대성이 편리한 단말기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말기 보급률 여하에 따라 e-Book 산업의 발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말기의 보급률의 저조함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현황

2년 전 XML, PDF 논쟁이 있었으나 OEB (Open eBook Forum)에서 XML을 채택한 후 국내외적으로 XML은 e-Book 문서포맷의 표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고 PDF가 시장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PDF는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XML 호환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XML과 PDF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뷰어/퍼블리셔, DRM (Digital Right Management)의 경우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표준 제정과 상호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지식정보콘텐츠산업협회(KEBIA), 한국디지털콘텐츠기술협회(DCTA) 등이 'e-Book 표준화포럼'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전자교과서 도입안 발표

값이 싸고, 책꽂이가 필요없고,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종이 소비를 줄여 친환경적 산업이라 인식되던 e-Book 산업이 초기의 관심에 비해 속도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소비자는 e-Book보다 종이책으로 읽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작가는 e-Book보다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e-Book이 소비자와 작가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필요성에 의해 책 대신 e-Book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작가는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보다 e-Book으로 출간할 때 얻는 부와 명예가 더 크다면 e-Book을 주저없이 선택할 것이다. 그런 점

설문내용		학생	대학교수	기업체
e-Book 인지도		54%	86%	64%
e-Book 개념에 대한 인식		57% (독서)	54% (독서)	35% (출판)
e-Book 실제 경험		18 %	81 %	37%
e-Book에 대한 느낌(이해도)	매우부정적	4%	4%	2%
	보통	76%	63%	67%
	매우중요	0%	0%	1%
e-Book에 대한 느낌(흥미)	매우부정적	4%	4%	1%
	보통	36%	45%	54%
	매우중요	0%	2%	0%
e-Book시장이 형성되었다		11%	9%	22%
e-Book활성화 가능(4년이내)		10%	9%	20%

※ e-Book허브사이트운영에 대한 연구보고서

에서 최근 e-Book 산업이 증폭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많은 기회요인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팜PC를 통해 유통되는 e-Book이 2001년 18만권 판매됐고,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PDA, 포켓PC에서 볼 수 있는 e-Book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상당수의 교사, 교수는 교육 교재로 e-Book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Book의 유통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지털위성TV, PDA, 포켓PC, IMT2000 등 새로운 매체에 담을 중요한 콘텐츠로 e-Book을 꼽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초중고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e-Book 구입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지식정보콘텐츠산업협회(KEBIA)에서는 위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흐름에 알맞은 e-Book 산업 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e-Book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Book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e-Book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기 때문에 e-Book 사용을 생활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지원아래 e-Book 종합정보시스템(www.ebook.or.kr)을 지난 4월 구축해 오픈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바로북, 예스24, 한국문화도서관, Novel21과 메타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의 e-Book 통합검색을 지원하며, e-Book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500권, 한국문학 관련 500권, 오디오북 9권 등 1000여 권의 e-Book을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의 e-Book에 대한 낮은 인식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작가, 교수, 교사 대상의 e-Book 제작교육

콘텐츠의 주요 생산자인 작가와 e-Book 활용이 가장 용이한 교사, 교수를 대상으로 e-Book 제작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e-Book 제작교육을 통해 많은 콘텐츠가 e-Book으로 제작돼 유통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전국초중고 e-Book 백일장 행사를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Book 콘텐츠 품질인증제 도입

현재 e-Book 콘텐츠가 소설, 무협, 성인물에 집중되고 있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Book 콘텐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문화, 교육, 전문, 실용 등 다양한 e-Book 제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무선 모바일 e-Book 프로젝트


e-Book 콘텐츠는 유선 인터넷 환경보다 휴대가 편리한 PDA, 포켓PC 등 무선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따라서 KEBIA는 올해 하반기에 무선 휴대단말기 환경에 맞는 모바일 e-Book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e-Book 통합검색 지원, 뷰어/퍼블리셔 보급, e-Book 제작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Book 산업 국제화 프로젝트

국내에서 구축된 e-Book에 대한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종합해 영미유럽과 중국화교권 등의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2003년경에 e-Book 종합정보시스템을 영문 및 중문 사이트로 개발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해 나갈 계획이다.

단말기 보급이 e-Book 활성화 관건

최근 인도에서는 PC보급률이 낮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해 정부, 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국민 PDA와 유사한 저가형 심퓨터(Simputer) 단말기를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 10억명의 인도인에게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의 e-Book 산업 도약을 위해 영세한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는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부쳐 보인다.

지식정보산업의 백미로 손꼽히는 e-Book 산업을 한국의 중요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기관, 기업이 조직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의 '심퓨터 보급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02년도 대학(원)생 IT인턴쉽 지원사업 신청안내

1. 개요

- IT분야의 우수 대학(원)생을 국내의 IT기업에서 인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2. 목적

- 대학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사회나 기업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지식을 미리 학습토록 함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내 IT인턴쉽 사업을 수행 할 국내의 정규 4년제 이상의 대학(원)
- 지원내용 대학(원)당 2.2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지원기간 1년, 1차년도 사업 진행 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
- 신청자격 국내 기업과 IT인턴쉽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인턴 연수 이수자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방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kipa.or.kr)에서 신청양식을 교부(download)받아 작성한 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kipa.or.kr) 및 IT인력개발단 SW인력팀 (☎ : 02-2141-5650) 으로 연락